



MEMBERS COLUMN



유럽의 화해자

# ROBERT SCHUMAN

올해는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 1886-1963)이 2차 세계 대전 직후 1950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럽 연합의 비전을 선언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유럽은 계속해서 그의 비전을 실현하여 오늘의 유럽 연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쉬망은 원래 룩셈부르크 태생이지만 나중에 프랑스 정치가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기독교민주당 및 유럽 연합의 창시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별히 양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화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더입니다.

쉬망은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렌 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나중에 이 지역이 독일제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을 통해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로베르도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독일인이 되었다가 1919년 알자스 로렌 지역이 다시 프랑스령이 되면서 국적이 프랑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모국어는 룩셈부르크어였지만 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신학, 철학, 법 등을 공부하여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마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자 쉬망은 수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건강상 병역에서 면제받아 대신 사회 봉사를 했습니다. 1차 대전 후 알자스 로렌 지방이 프랑스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프랑스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1919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전쟁이 로렌 지역의 석탄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독일 나찌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참여하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으나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후에는 프랑스의 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국무 총리직도 2번이나 수행하면서 공산당과 드골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외무 장관이 되면서 전후 유럽의 상호 미움과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의 비전으로 1950년 5월 9일, 파리의 외무부 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원칙하에 초국가적 민주 공동체를 유럽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쉬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을 발표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 단결과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도 그리스도적인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섬김’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함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미래의 연합된 유럽은 기독교적인 동시에 민주적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에서 단절된다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그리고 연민(compassion)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다양성과 통일성(unity with diversity)도 기독교적 관용과 평등이라는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공동체의 기존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의 원칙에 따라 쉬망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쉬망의 선언에 동의했고 콘라드 아데나워가 수상으로 재직하던 독일을 비롯해 모든 유럽국가들의 석탄철강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파리 회의 이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기초로 1958년에 유럽 의회의 전신인 유럽 위원회(European Assembly)가 설립되었으며 쉬망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연합은 5월 9일을 그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지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아마도 유럽의 현대사에 있어 철의 장막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진 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에 유래가 없는 60년간

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망은 기독교 민주당원이었고 독립적이며 행동적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유럽각료회의(Council of Europe)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창설하는 주역이 됩니다. 1960년,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하면서 그는 유럽의 아버지(Father of Europe)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쉬망은 동시에 성경도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중세 철학의 전문가였으며 특히 자끄 마리탱(Jacques Maritain)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The Schuman Center가 창설되었습니다(www.schumancentre.eu). YWAM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제프 파운튼(Jeff Fountain)이 쉬망의 비전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과거를 통해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쉬망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양차 세계 대전을 종식하고 전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럽의 화해자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후 5:18)”

글. 최용준 목사(캐나다 VIEW 교수)